오늘의 날씨와 생활

기상정보

1월 7일 화요일 음 12월 8일(조금)

파고 1.5~2.5m

파고 2.0~4.0m 파고 2.0~4.0m

3~10℃

제주는 흐리고 비가 오겠다. 아침 최 저기온은 2~5℃, 낮 최고기온은 8~10 ℃로 예상된다. 풍랑이 강하겠으며 산간도로 빙판길을 유의해야겠다.

흐리고 비

오전 강수 확률				를 오후		해뜸 07:39 해짐 17:42		
60%	6	제	주	60%		만조 04:03	간조 10:23	
709	6	성	산	70%	물때	16:15	23:13	
709	6	IJ.	산	60%				
30% 서귀포		30%		자외선지수 산불위험지수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흐리고 비/눈 2/5℃

흐리고 비/눈 2/6℃

30% 서귀포 30%

낮음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모레

이시바 "美에 우려 불식 요구할 것"

US스틸 인수 불허에 기자회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를 불 허한 것과 관련해 "일본 산업계에 서 미일 간 투자에 대한 우려의 목 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이 우려를 불식 시키기 위한 대응을 미국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미에현 이 세시 이세신궁(伊勢神宮)을 참배 한 뒤 현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질문에 "미국 국내법에 따라 심사 중이던 개별 기업의 경 영에 관한 안건에 대해 일본 정부 가 코멘트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코멘트하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왜 안보 우려가 있는 것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연합뉴스

지 (미국 정부로부터) 정확히 말을 듣지 않으면 앞으로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앞으로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말한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 통령 당선인과 회담에 대해 "현재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가장 적합한 시기에 적합한 형태로 실 현되도록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 했다.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 한 욱 편집국장 고 대 로 🍛 한 리 일 보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제 주 의 대 표 신 문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e-mail:hl@ihalla.com 구독신청·배달 750-2315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한라칼럼



문 만 석 한국지역혁신연구원장·법학박사

저출생과 고령화는 우리 사회가 직 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로 여겨진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은 1980년에 2명대가 무너진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23년 0.72명으로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저출생은 노 동 인구 감소·경제 성장 둔화·사회 적 연대 약화를 초래하고, 고령화는 의료비 증가・연금 제도의 부담・노 인 돌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우리 사 회는 단순히 인구 감소를 넘어 지 역 사회와 국가의 지속 가능성 자

우리는 소멸하고 있는가?

체를 위협받는 상황에 이를 수 있 다. '지방 소멸 위험지수'는 20~39 세 가임기 여성 인구 대비 65세 이 상 고령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측정 한다. 이 지수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기에 처한 기초 자치단체는 89곳에 이른다.

지역이 여러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고, 인구 감소가 현실이 되는 상 황에서 우리 사회는 결국 소멸해야 하는 운명을 안고 있는 것일까? 한 가지 명확한 것은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소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처음 '지방소멸'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일본에서는 최근 '지방 창생' 이라는 긍정적 용 어로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시 도하고 있다. 그러나 소멸을 막고 창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용어 만이 아니라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 하다. 단순히 출생률을 높이는 정

책을 넘어,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혁신이 뒤따라야 한다.

우선 전통적인 출산 장려 정책 대신 가족의 다양한 형태를 포용하 고, 양육과 돌봄의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누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시스템 속에서 무상 보육 확대, 유 연 근무제 강화, 양육비 지원 등을 통해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개선해 야 할 것이다. 또한 노년층의 경험 과 지식을 지역 사회와 경제에 활 용할 수 있도록 재취업, 창업 지원, 세대 간 멘토링 프로그램 등이 강 화돼야 한다. 노년층은 단순히 돌봄 과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적이 고 능동적인 사회적 자원으로 재평 가돼야 한다.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해 경제적·문화적 활력을 되찾 는 '지역 재생' 또한 중요하다. 이 를 위해 지역 청년이 지역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과 일자리

정책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지역 소멸은 특정 세대만의 문 제가 아니라. 세대 가 이해와 연대 를 강화해 공동체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문제다. 그런 면에 서 지역과 지역 주민은 문제의 중 심이자 해법의 출발점이 될 수 있 다. 우리 앞에 놓인 지역 소멸의 위기를 사람 중심의 정책과 지역 중심의 해결책을 통해 지속 가능 한 사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 역에 발붙이고 사는 주민이 주체 가 돼 지역의 정체성과 강점을 살 리는 전략을 마련한다면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 을 것이다. 소멸이냐 창생이냐는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달린 문제 이고, 소멸의 위기를 창생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힘은 결국 그곳에 사는 우리에게 있다.

열린마당

리바운드



강경림 제주특별자치도

'리바운드'라는 영화를 관람한 적 이 있다. 2012년 원주에서 펼쳐진 제37회 대한농구협회장기대회에 출전한 농구부의 준우승 실화를 바 탕으로 삼았다. 최약체 농구팀으로 결승까지 진출하는 대이변의 드라 마가 따로 없었다. 경력이 전무한 년 전국 고교농구대회에 출전해 결 승 진출의 쾌거를 올린다.

이 영화는 골인되지 않고 림(rim)이나 백보드에 맞고 튀어 오른 공 을 다시 낚아채는 농구 기술인 '리 바운드'를 영화의 타이틀로 삼은 만큼.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이 재 도약의 기회로 변화하는 시점을 포 착하는데 주력한다. 농구부원들은 골인되지 않은 것과 같은 현재 상 황에 낙담하는 대신 리바운드를 위 한 도약에 온 힘을 쏟는다.

리바운드는 인생뿐만 아니라 국제 교류에도 큰 시사점을 준다. 지방자 치단체에서는 국내외 지방 간 친선 교류 체결을 도모하고 문화교류 활 성화, 국가 간 네트워크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꾸준히 협력하고 있다. 서로 원활한 교류를 위해 서신도 교 환하고, 한 번씩 교차 방문하면서 양해각서도 체결한다. 전 세계적으 로 지방외교가 확대되고 지방시대가 구현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국 코치와 무명의 여섯 선수들은 2012 제교류 협력은 지역의 민생 경제를 살리고 지방외교가 국가외교를 보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국제교류는 한 번에 완전함을 이 루기 어려우므로 리바운드의 기회를 염두에 둬야 한다. 기다림 속에 지 역과 국가 간 작은 소통부터 지속한 다면 분명 교류가 활성화될 것이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이 애 순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때,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두 달 전, 8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이 면 사무소를 찾았다. "치매가 있는 남 편과 함께 살고 있는데, 병원비 부 담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며 정부 지원을 문 의했다.

가구를 방문해 어르신의 생활을 살펴보니, 악재가 겹쳐 경제적 어려 움을 겪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도 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사업이 떠올랐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은 저소득층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복 지사업이다. 기준중위소득 50% 이 하인 가구에 제공되며, 2인가구 기 준 월 196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대상이다.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그리고 18세 미만 아동에게 병원 진료비와 약제비 일부를 지원한다. 이는 국민 건강보험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해당 어르신 가구는 차상위본인 부담경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고, 남편의 의료비와 장기요양서비스 본인부담금뿐만 아니라 어르신 본 인의 병원비도 일부 감면받게 됐 다.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 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의료비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제도를 꼭 확 인해 보시기 바란다. 저소득, 저재 산인 경우 거주지 읍면동 복지팀에 상담을 요청하고 신청 서류를 제출 하면, 가구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 무자 소득조사 등을 거쳐 지원 여 부를 확인할 수 있다.

써니트묘목분양

- 써니트 - 카라향 2년 - 달콤 - 미래향 - 감평 - 한라봉 2년

'씼니트'묘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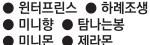
- '써니트'(품종보호 제6039호)는 「한라종묘」에서 품종보호권자 현성익(서귀포시 상효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용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묘목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써니트 라는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판매 하는 것도 불법) 농가 에서도 타 업체에서 묘목을 구입하거나 현재 재배하는 농가로 부터 접순 나눔(고접 등)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는 민 형사상의 책임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종자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저희 「한라종묘」로 연락을 주시면, 협의 후 원만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한라종묘에서는 묘목을 정상적으로 구입해서 재배하시는 분들을 위한 보호 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 ■ 불법 유통한 묘목으로 생산된 과일은 써니트로 판매를
- 못합니다. (적발시 형사처벌 합니다) ★ 불법유통 조치 현황 ·농가 : 27 농가 ·업체 : 3개 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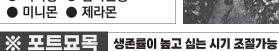
종자업 등록번호 :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락처 : 010-3696-2057

※ 감귤보급품종(1~3년생)

- 가장 많이 찾는 인기 품종 ● 레드향 ● 천혜향
- 카라향● 황금향
- 한라봉● 궁천
- 유라조생
- 오하라베니와세
- 금귤 하귤(아마나스) 外 다수품종보유

※ 국내육성품종(1~3년생)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품종





유라조생 / 카라향 / 레드향 / 황금향 / 천혜향 / 한라봉 / 하례조생 / 윈터프린스 / 하귤 / 오하라베니 / 레몬 外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농장 : 서귀포시 선반로 112-5(강정동2327-1) 하예동 1831-2번지 外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직접수리·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064-**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라 전

대 표:현 문 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